

삼성, 핵심 화학기술 R&D투자 집중

전자·기계·화학 R&D에 5년간 47조원 투자 ... 연구인력 3만명 채용

삼성그룹은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그룹 차원에서 앞으로 5년간 연구개발(R&D) 분야에 총 4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.

삼성그룹은 11월8일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용인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열린 <2005 삼성기술전> 개최식에서 중장기 R&D 투자계획에 따라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동통신, 고부가가치 선박, 나노소재 등 전자·기계·화학분야 핵심기술에 R&D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5-10년 후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로 결정했다.

구체적으로는 △고용량 메모리 △차세대 디스플레이 △이동통신 △디지털 TV △차세대 프린터 △시스템 LSI △차세대 대용량 스토리지 △에어컨트롤 시스템 △에너 △광원 △고부가가치 선박 △정밀광학기기 △전자재료 등을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정해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.

고용량 메모리와 디스플레이, 이동통신, 디지털 TV 등은 이미 세계 선두권에 진입했으나 2010년까지 현재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도록 집중 육성하며, 에너지와 광원 등 유망사업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대규모 시장이 형성될 때에 대비해 기반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.

이를 위해 매년 6000명씩 5년간 총 3만명의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.

또 R&D 투자와는 별도로 기초기술 개발과 산학협력 연구개발에 5년간 4조원, 협력기업 경쟁력 강화에 1조 2000억원 등 5조2천000원을 투입해 협력기업의 동반성장과 산업기반기술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.

삼성은 R&D투자가 마무리되는 2010년에는 차세대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캐시 카우(수익 창출원) 역할을 하는 월드 베스트제품이 현재 21개에서 50개로 대폭 늘어나 세계 초일류기업의 반열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삼성은 R&D 전략을 통해 2010년 매출액 270조원, 세전이익 30조원, 브랜드가치 700억달러의 <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>이라는 비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05/11/09>